

시간을 끌어안은 바다는 말이 없고...

발로 딛는 잠녀의 삶-한림읍 옹포리

등록 : 2007년 01월 14일 (일) 15:39:20
최종수정 : 2007년 01월 14일 (일) 15:39:2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칼바람이 분다. 먼 바다가 하얗다. 옹포 바다는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만들 생채기들로 품는 법을 잊어버린 듯, 바다는 철새없이 높은 파도만 토해낸다. 계절 탓만은 아니다. 근·현대사를 아우른 큰 획 하나를 안고 있는 때문일까. 유난히도 까칠한 바다가 맘에 걸린다.

△많을 때는 80명 넘게, 지금은 크게 줄어

옹포의 상시 잠녀는 30명 안팎이다. 한창일 때 80명 넘게 바다에 나갔던 것을 감안하면 수가 크게 줄었다. 그중 대부분이 60대다. 55세 미만(40대 2명 포함)이 9명이다.

천초나 툇 작업을 할 때면 50명까지 섬을 할 수 있지만 고령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고 했다.

아흡물을 제외한 모든 날 물질작업을 하고 금채기 때면 바깥물질을 나갈 만큼 바다 의존도가 높은 옹포지만 정작 지선 어장 작업은 1면 4~5차례가 전부다. 비양도 9개리 공동어장에서의 작업이 더 많다.

옹포 바다에도 다른 바다들과 마찬가지로 전복이나 소라 종패를 뿌리는 '목'이 있지만 2~3년전부터 종패 사업 자체를 안하고 있다.

고 명 어촌계장(65)은 "갯녹음 등으로 종패가 정착도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뒷작업을 하는 것이 더 번거로워 잠녀들이 나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복이 잡혔었지만 지난해부터는 거의 찾기 힘들어졌다.

대신 소라는 한림읍 관내 어촌계 중 최고다.

포구가 좋은 옹포는 비양도 9개리 공동어장 작업을 하는 정치망이나 잠녀 수송선이 정박한다고 했다. 활어차에 잠녀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조립식 간이 건물들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고 어촌계장은 "옹포는 물일도 많지 않아 바다에 나가지 않는 잠녀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일을 하러 가곤 한다"며 "요즘은 하루 10시간 이상 한림수협 조기 분류 작업을 하는 잠녀가 많다"고 했다.

△말없이 시간을 끌어안고...

불쑥 옹포 갯벌 매기가 나왔다. 한림항이 만들어지고 연결 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진 갯벌은 지금 흔적만 남아있다.

‘흔적’애기 속에 감태공장이 빠질 수 없다.

물어 물어 찾아간 한익수몽(72)은 “예전에는 생활비 벌이는 될 정도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감태공장은 한 몽의 아버지인 한군수씨가 해방이후 ‘적산’으로 분류된 것을 분하밭아 운영했다고 했다. 한 몽은 “어린시절 일이라 뚜렷하지는 않지만 당시 잠녀들이 직접 감태를 캐다 말려 새로 만든 후 공장으로 가져왔다”며 “남자 종업원도 25명이나 됐지만 ‘판로’가 취약해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감태공장은 돼지해인 1959년 태풍 사라에 무너졌다 다시 소라 등 통조림 공장 등으로 운영됐지만 물건이 나지 않고 수지가 맞지 않아 30년전쯤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초대 수협 이사를 역임했던 양상봉몽(76)는 그 즈음을 5·16쿠데타 이후로 기억했다. “그전까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계통판매가 5·16 쿠데타 이후 안정됐다”며 “소라·전복 등을 고급 수산물로 분류해 전량 일본 수출을 하면서 잠녀들의 소득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양 몽은 ‘잠수(潛嫂)’용어에 대한 기억도 끄집어냈다.

“70년 들면서 ‘잠수’를 통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후 행정적으로 ‘잠수’를 사용하게 됐다”며 “‘해녀’라고 부르면 어딘지 비참한 느낌이 들어 ‘잠수’로 쓰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었다”고 기억했다.

양 몽은 “1974년 어업조합 주도로 어촌계가 구성되고 어업권을 분할하면서 바다를 축양했다”며 “그때부터 불거졌던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바다가 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옹포에서도 바다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탈의장이 들어서면서 불턱도 없어지고 당이니 해녀제니 하는 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없다.

바깥물질을 인솔하던 사람들 대부분 유명을 달리했고 잠녀들 역시 시간의 흐름에 시나브로 존재가 흐려지고 있다.

아직 중간에도 도달하지 못한 잠녀들의 현장을 찾는 발길이 공연스레 더 바빠진다.

‘발로 달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림읍 한림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